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관한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구조분석*

박 선 희

(성덕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파악하고,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성지능, 인권태도 요인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로 영성지능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역량을 설정하였으며, 인권태도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5개 대학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으로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과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성지능의 경로에서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결성을 내포한 영성지능의 수준을 높게 가질 때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되는 인권적인 관점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주자들을 원조하는데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이 '다문화 역량 민감성', '영성지능 민감성', '인권태도 민감성' 등의 3가지 '다(多)민감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 다(多)민감성, 구조방정식, 대학생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임.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집단의 이주로 인해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지 못하고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두 요소가 혼재하는 상황이다(이춘호, 2014: 2).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소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주민들이 문화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장애가 됨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집단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 충돌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도희, 2013: 197).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원조하는 전문가의 역할수행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된다.

이주민을 원조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다문화 역량은 전통적인 토착 문화와 다른 언어·인종·민족적 배경을 갖는 유입 문화의 접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정착과정을 수월하게 돕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최혜지, 2011). 다문화 역량이란 문화적으로 유능한 기술·지식·가치를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 된다.

사회복지사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문화 실천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인권을 보호하는 실무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장차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될 예비사회복지사들의 다문화역량과 인권적인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김세영, 2015; 민선영, 2008).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이질적인 문화배경으로 인해 마음의 굳어짐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전인적 차원의 영성을 활용한 접근으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주 대상이 예비사회복지사들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이다(신성자, 2013).

사회복지 실천과정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유영준, 2013: 52-53). 사회복지 안에서 영성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느 전문직보다 영성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의 영성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해 보다 이타적인 접근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직이 중요시하는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심만섭, 2015). 더욱이 다문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초종교적인 영성을 활용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영성의 개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권사상은 다문화주의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으로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정관념과 편견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한다(문종욱, 2012: 463). 타인에 대한 존엄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인권적인 태도는 영성적인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문화배경에서 비롯되는 배타적인 감정을 극복한다거나(신성자, 2013), 초월적인 영성의 특성이 강할수록 인권지향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미경,

2011)를 통해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의 관계에서 인권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영역에서 다문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휴먼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문화 실천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의 관련변인으로서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수준과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과 인권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이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인권태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역량

다문화사회에서 다민족, 다언어의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으로서 다문화 역량이 있다. 다문화 역량은 문화적 민감성, 문화간 유능성, 문화적 역량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문화적 민감성이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화간 유능성은 문화간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 기술을 포함한다(김연희, 2007).

문화적 역량은 클라이언트로서의 개별 다문화 구성원과 집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다문화적 이해와 지식을 더하게 한다. 문화적 역량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다문화적 실천 기술의 확보를 통해 다문화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장은동, 2011).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정착된 국가에서는 다문화 역량의 개념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적 개념인 문화적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역량과 문화적 역량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박정희, 2013: 22-2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역량의 개념적 의미로 다문화 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다문화 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Chen과 Starosta(2000)는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문화적 감수성의 능력, 타문화간 구성원들에게 자기표현하기, 메시지 전달과 같은 상호작용의 능력으로 보았으며, Sue(2006)는 다문화 역량을 총체적 인간행동양식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대상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고 대상 집단 이외의 집단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통합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Epstein과 Hunder(2002)는 다인종·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관이 해당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 방식, 지식, 기술, 임상적 추론, 정서와 가치, 자기 성찰 능력 등을 일관되고 주의깊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가 하면, Olavarria, Beulac, Bélanger, Young 그리고 Aubry(2005)의 경우에도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능력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태도, 실천, 정책 및 구조로 다문화 역량을 설명하였다.

위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의미들을 종합하면,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다원화된 실천 상황에서의 역량이며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유능한 기술과 지식, 가치를 발전시켜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문화 역량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문화 인식,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 합의하고 있다(Lum, 2003; Sue, 2006; Weaver, 2004). 첫째, 다문화 인식은 자신의 신념, 가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문화적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다른 문화적 집단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며 둘째, 다문화 지식은 다양한 문화 집단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역사, 관습, 전통 등 문화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등 문화적 강점과 유사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 기술은 다문화적 지식과 인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일반적 실천기술에서 다문화집단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화적 사정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같은 기술 등을 포함한다.

예비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은 다문화 현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현장에서 자신의 인식, 지식, 기술 수준을 평가할 준거를 찾기 어렵다. 예비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 역량의 구성요소 중 다문화 기술을 제외한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지식만을 포함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실천 현장에서 보다 더 풍부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다문화 역량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문화 인식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문화차이 인식),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며(자기가치 인식),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에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타인가치 인식)을 의미한다. 다문화 지식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역사적 배경을 알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지식을 포함한다.

2) 영성지능

Wigglesworth(2006)는 영성지능의 개념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평화(평정)를 유지하면서 자기초월적인 큰 지혜(Wisdom)와 큰 자비심(Compassion)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영성지능은 자기초월성을 가능하게 하고 자비심으로 행동하며, 실질적인 면에서 영적자원과 자질을 구현하게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영성지능은 인간이 가

진 한계자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며 규칙을 바꾸고 상황을 개조할 수 있게 한다. 영성이 발휘하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영성지능이다.

Zohar와 Marshall(2004)에 따르면 영성지능은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있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영혼의 지능으로 우리가 경계(질서와 혼돈 사이)에 있을 때 나침반이자 안내자가 되며, 우리가 직접적이고 소아(小我)적인 자기를 극복하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정희, 2010: 11).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실천현장에서 영성지능을 활용할 때 자신과 타인,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자기초월성을 발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존재와 문화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발적인 실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신성자, 2013).

한편, Howden(1992)은 영성지능의 구성요소를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통합적 관계성, 초월성으로 보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준거로서 삶의 이유와 의미 및 목적 진술, 성취, 미래지향적 성향을, 그리고 내적 자원에 대한 경험적 준거로서 내적 강인함, 내적 평화, 자아존중감 및 자신에 대한 파악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오복자와 강경아(2001)는 삶의 의미, 초월적 에너지, 관계성, 사랑, 영성인식의 다섯 가지로 하위요인을 나누었으며, 이은철과 김민정(2010)은 삶의 목적, 초월적 힘을 경험하는 것, 신과 관계된 경험을 하는 것 등 11가지를 영성지능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영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적건강척도(Chappel, 1992), 영성평가척도(Howden, 1992)를 변안한 이경열(2005)의 영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성지능의 하위요인을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의 6가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월성은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는 능력으로 '나'를 초월한 영적 존재(우주, 하느님, 부처님)를 느끼고 그러한 존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삶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방향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자비심은 타인을 측은하게 여기고 배려하며 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내적자원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째, 자각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연결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 타인을 친근하게 느끼고 행복하고 충만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권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은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이종태 외, 2005).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성과 타고난

고유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적 특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특질로 한다(윤찬영, 2000).

한편 인권을 지지하는 일관성의 정도를 인권태도라고 하며 인권적인 태도를 가질 때 문화적 차이를 서열화 하지 않고 자신과 다르지만 동등하게 존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태도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 실천현장 등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의 태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며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인권태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황미경, 2014). 최근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인권태도가 비교적 높고 인권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류귀분, 2014; 송영선, 2012).

인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Getz(1985)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와 관련시켰으며 미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로 하여 인권의 영역을 나누고 인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인권태도 질문지(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nventory)를 제작하였다. 그의 인권태도 척도는 인권의 보편적 성격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위 요소들은 언론의 자유, 기회의 평등, 생존 및 보건의 권리,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생활권이 며 이러한 인권 요소들의 바탕에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기본권들이 반영되어 있다.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허용하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며, 출판물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기회의 평등은 성별과 장애유무, 인종과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고용될 권리, 주거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생존 및 보건의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생명 보존, 사회 보장을 받으며 보건의 복지과 관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한다. 종교·정치·사생활권은 종교의 자유와 투표권 등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포함하며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시민적 자유를 말한다.

4)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관계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실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도승자, 2015; 신성자, 2013). Sue(2006)는 영성이 인간 조건의 밀접한 양상이며 사회복지실천의 합법적인 양상으로서 인간 생활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성은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것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클라이언트의 총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전존재에서 영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사는 전인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 생물적, 심리·사회적인 여타의 특성들을 아우르는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영성적 특성이 고려될 때 삶의 총체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다양성에 내재된 영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보편주의의 우월성을 믿는 사회복지사는 문화적으로 둔감하여 차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경향을 만들게 된다.

영에서 비롯된 초문화적 접근이 내포하고 있는 영성의 의미는 문화와 믿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영성적 믿음의 영적 표현이다. 이러한 영성을 활용한 초문화적 접근은 다문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교류문화적 다양성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연관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성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심리적·육체적·문화적 유대와 의미, 나아가 영적 욕구의 의미까지도 인지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측면이 아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실천으로 이끈다(Holloway & Moss, 2010).

동일한 맥락에서 다문화 실천현장에서 이주민들을 원조하는 실천가들은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영성의 강화를 통해 자기 초월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실천현장에서의 초월적 관점이란 자신과 다른 이질적 문화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마음을 달거나 배척하려는 자기 자신을 넘어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자기 확장의 관점과도 같다(신성자, 2013).

영성적 접근은 존재의 전체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며 이 전체성은 자신, 다른 사람, 신(god) 또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의식적인 연관성의 과정이 완성됨을 의미한다(김용환·김승돈·최금주 역, 2007: 29). 이러한 자기 초월적인 관점의 전체성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실천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역동적 지식과 민감성을 향상시키고자 자신의 지식과 가치, 기술들을 연결시키려 노력하며 클라이언트의 영적인 욕구를 포함한 갈망과 우선순위를 따라 필요로 하는 바를 돕는다(유장춘, 2003: 20-21).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적 가치 지향은 인권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민의 역사와 경험이 적고 동질감이 강한 전통을 가진 한국적 상황에서 이주민 집단에 대한 거부감은 차별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이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인권의식이 자신과의 차이를 이상한 것 혹은 열등한 것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르지만 동등하게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차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인권과 다문화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취약한 상황에 놓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의식, 인권적인 태도가 다문화적 역량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범석, 2009). 또한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간 감수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의 특성이 강할수록 문화간 상호작용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기보다 개인의 평등성과 동등성을 강조하는 특성이 문화간 상호작용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정덕·모경환, 2011).

한편, 사회복지사의 영성은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종교적 차이, 모든 인간적 차이를 넘어서 보살

핍과 존경의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을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의 지위에 놓는 태도는 개인적 한계와 이익을 초월한 자아초월적인 영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미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도 영성적 특성들이 봉사, 존엄성 등의 인권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Canda & Furman, 2010).

영성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분명한 도덕적·윤리적 결정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또한 영성은 인간을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같은 기능적 시각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인권적이고 존재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클라이언트를 영성적으로 대할 때 도움을 주고 받는 상하수직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위치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된다(김테레사, 2001).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가 인권적인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영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경, 2011).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의 관계에서 인권태도의 매개적인 역할을 다룬 실증적인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관계 그리고 인권태도와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매개적인 역할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15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5개 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2, 3, 4학년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9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거나 기입항목이 누락된 자료 33부를 제외하고 총 259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다문화 역량

다문화 역량 측정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점수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기술을 제외하고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지식을 포함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한 박소정(201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역량은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문화 인식으로 문화차이 인식 4개 문항, 자기가치 인식 3개 문항, 타인가치 인식 5개 문항이며, 다문화 지식의 7개 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66으로 나타났다.

(2) 영성지능

영성지능 척도는 영적건강척도(The Spiritual Health Inventory; Veach & Chappel, 1992), 영성평가척도(Assessment Scale; Howden, 1992)를 번안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경열(2005)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전정희(2010)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영성지능은 총 30개 문항으로 6개의 구성요인(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으로 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3) 인권태도

인권태도 척도는 Getz(1985)가 개발한 것을 이승미(2000)가 번안한 것이다. 인권태도 검사 40문항 중 10문항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진술문이고, 나머지 30문항은 반론의 여지가 있는 논쟁적 진술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73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년,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 등 6문항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권교육 경험은 교육의 경험 유무로 측정하거나 경험의 횟수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의 횟수로 측정하고 빈도 분석을 통해 집단 간 분포를 보았다.

3) 분석 방법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과 각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관측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구조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여섯째,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로 제시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검정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방식을 이용하였다(Baron & Kenny, 1986).

4.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30.5%(79명), '여학생'이 69.5%(180명)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32.4%(84명), '22세' 23.2%(60명), '23세' 18.5%(48명), '24세 이상' 25.9%(67명)로 나타났다. 학년에는 '2학년'이 34.4%(89명), '3학년' 36.7%(95명), '4학년'이 29.0%(75명)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에서는 '종교없음'이 58.3% (151명), '불교' 18.1%(47명), '기독교' 12.0%(31명), '천주교' 10.4%(27명), '기타' 0.4%(1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경험 '없음'은 36.3%(94명), '1회' 28.2% (73명), '2회' 18.9%(49명), '3회' 6.9%(18명), '4회' 0.8%(2명), '5회 이상' 8.9%(2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경험 '없음'은 36.7%(95명), '1회' 30.5% (79명), '2회' 15.8%(41명), '3회' 6.6%(17명) '4회 이상' 1.2%(3명), '5회 이상' 9.3%(24명)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9	30.5
	여자	180	69.5
	소계	259	100.0
연령	21세 이하	84	32.4
	22세	60	23.2
	23세	48	18.5
	24세 이상	67	25.9
	소계	259	100.0
학년	2학년	89	34.4
	3학년	95	36.7
	4학년	75	29.0
	소계	259	100.0
종교	없음	151	58.3
	불교	47	18.1
	기독교	31	12.0
	천주교	27	10.4
	기타	1	0.4
	소계	257	99.2

변수(범주)		빈도	백분율(%)
다문화 교육경험	없음	94	36.3
	1회	73	28.2
	2회	49	18.9
	3회	18	6.9
	4회	2	0.8
	5회 이상	23	8.9
소계		259	100.0
인권 교육경험	없음	95	36.7
	1회	79	30.5
	2회	41	15.8
	3회	17	6.6
	4회	3	1.2
	5회 이상	24	9.3
소계		259	100.0

(2) 주요변수의 기술적 분석

다문화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41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323에 최소값 2.47 그리고 최대값 4.32이다. 하위요인별로 '자기가치 인식'(M=3.87)이 가장 높았고, '문화차이 인식'(M=3.64), '타인가치 인식'(M=3.51), '다문화 지식'(M=2.99)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32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534에 최소값 1.60 그리고 최대값 4.97이다. 하위요인별로 '초월성'(M=3.56)이 가장 높았고, '자비심'(M=3.47), '삶의 의미와 목적'(M=3.45), '내적자원'(M=3.27), '연결성'(M=3.08), '자각'(M=3.06)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5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269에 최소값 2.45 그리고 최대값 4.33이다. 하위요인별로 '기회균등'(M=3.41), '언론자유'(M=3.41)가 가장 높았고, '종교·정치·사생활권'(M=3.29), '생존 및 보건의 권리'(M=3.27)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다문화 역량	259	3.41	.323	2.47	4.32
형성지능	259	3.32	.534	1.60	4.97
인권태도	259	3.35	.269	2.45	4.33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수준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으며, ANOVA의 경우 사후검정으로 Scheffe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의 경우 '있음'과 '없음'으로 변수를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1) 다문화 역량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교육 경험'(t=-4.413, p=.001)에서는 '있음'(M=3.47), '없음'(M=3.29)으로 나타나(p<.001) 다문화교육의 경험이 있을 경우 다문화 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 경험'(t=-3.936, p=.001)에서는 '있음'(M=3.46), '없음'(M=3.31)으로 다문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001)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을 경우 다문화 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역량의 차이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다문화교육 경험	없음	94	3.29	.314	-4.413***
	있음	165	3.47	.310	
인권교육 경험	없음	95	3.31	.307	-3.936***
	있음	164	3.46	.318	

***p<.001

(2) 영성지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영성지능에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는 종교(t=-2.348, p=.020)에서 '있음'(M=3.41), '없음'(M=3.25)으로 영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05) 종교가 있는 경우 영성지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 경험'(t=-2.517, p=.012)에서는 '있음'(M=3.37), '없음'(M=3.22)으로 나타나(p<.05)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영성지능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영성지능의 차이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종교	없음	151	3.25	.536	-2.348*
	있음	106	3.41	.520	
인권교육 경험	없음	95	3.22	.431	-2.517*
	있음	164	3.37	.579	

*p<.05

(3) 인권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권태도에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는 '연령'(F=2.666, p=.048)에서 '24세 이상'(M=3.41), '23세'(M=3.37), '22세'(M=3.34), '21세 이하'(M=3.29)의 순으로 인권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인권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학년'(F=6.845, p=.001)에서 '4학년'(M=3.44), '2학년'(M=3.31), '3학년'(M=3.31)의 순으로 인권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이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경험'(t=-2.610, p=.01)에서는 '있음'(M=3.38), '없음'(M=3.29)으로 나타나(p<.01) 다문화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 경험'(t=-2.112, p=.036)에서는 '있음'(M=3.75), '없음'(M=3.30)으로 인권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p<.05)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태도의 차이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Scheffe
연령	21세 이하(a)	84	3.29	.213	2.666*	
	22세(b)	60	3.34	.289		
	23세(c)	48	3.37	.259		
	24세 이상(d)	67	3.41	.308		
학년	2학년(a)	89	3.31	.240	6.845***	c>a,b
	3학년(b)	95	3.31	.276		
	4학년(c)	75	3.44	.273		
다문화 교육경험	없음	94	3.29	.262	-2.610**	
	있음	165	3.38	.269		
인권 교육경험	없음	95	3.30	.289	-2.112*	
	있음	164	3.75	.255		

*p<.05, **p<.01, ***p<.001

3)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영향

(1) 자료의 특성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모형 내 주요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값들은 왜도의 절대 값이 모두 2미만, 첨도의 절대 값이 7미만으로 첨도, 왜도의 유의성이 정규성 가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종필, 2012).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 등의 주요변수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전체	1	2	3
다문화 역량	1		
영성지능	.214***	1	
인권태도	.121*	.106 [†]	1

† p<.10, *p<.05, ***p<.001

(2)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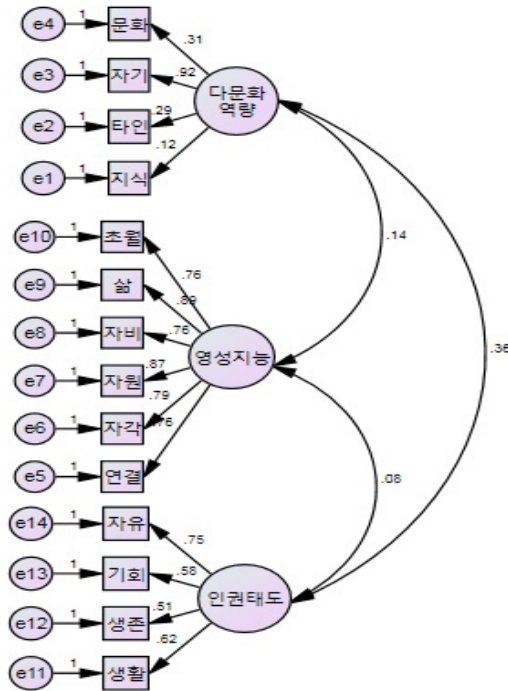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하위영역을 관측변수로 하여 측정모형에 대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IFI와 C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고 있으며, RMSEA의 경우 .1 이하는 보통의 적합도, .08이하는 양호한 적합도, .05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보고 있다(우종필, 2012).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chi^2/df=4.163$, IFI=.893, CFI=.892, RMSEA=.086으로 나타나 IFI와 CFI가 .90에 가깝고 RMSEA가 보통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으로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한 지표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측정모형의 각 변수의 요인부하량을 통해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관측변수들의 C.R값 또한 p<.05,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B	β	S.E	C.R	p
다문화 역량	→ 다문화 지식	1.000	.126			
	→ 타인가치인식	2.366	.294	1.048	2.259	*
	→ 자기가치인식	7.764	.922	3.180	2.442	*
	→ 문화차이인식	2.315	.312	1.016	2.278	*
영성지능	→ 연결성	1.000	.762			
	→ 자각	1.046	.795	.061	17.076	***
	→ 내적자원	1.093	.870	.058	18.916	***
	→ 자비심	.952	.762	.058	16.272	***
	→ 삶의 의미와 목적	1.178	.809	.068	17.421	***
	→ 초월성	.916	.761	.056	16.231	***
인권태도	→ 종교·정치·사생활권	1.000	.628			
	→ 생존 및 보건의 권리	.627	.514	.077	8.158	***
	→ 기회의 균등	.711	.582	.080	8.936	***
	→ 언론자유	1.156	.759	.118	9.813	***

*p<.01, ***p<.001



<그림 1> 측정모형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chi^2/df=3.904$, $IFI=.904$, $CFI=.904$, $RMSEA=.082$ 로 적합도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수 간 3개의 경로인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성지능의 경로와 다문화 역량에 대한 인권태도의 경로,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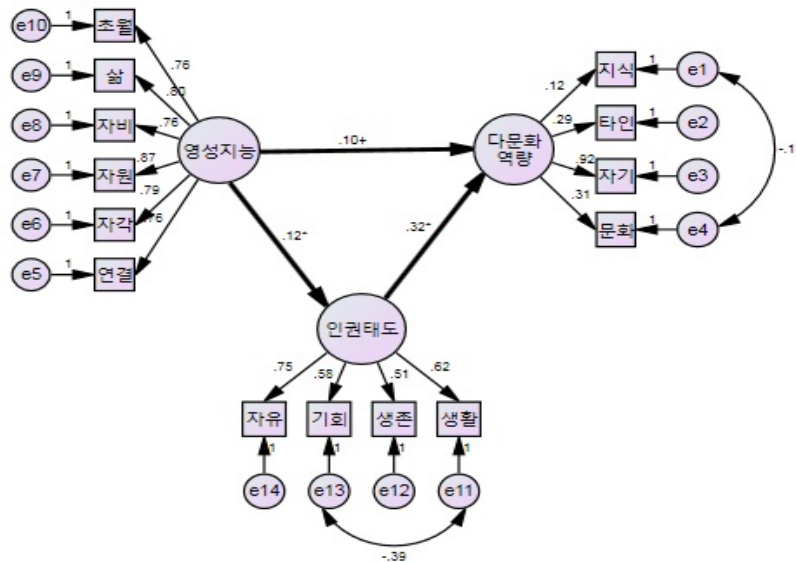
첫째, 독립변수인 영성지능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역량($\beta=.109$, $p=.10$)으로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인권태도($\beta=.129$, $p=.05$)로 향하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과 인권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개변수인 인권태도가 종속변수인 다문화 역량($\beta=.322$, $p=.05$)으로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B	β	S.E	C.R	p
다문화 역량	← 영성지능	.016	.109	.010	1.613	†
	← 인권태도	.079	.322	.034	2.312	*
인권태도	← 영성지능	.077	.129	.034	2.290	*

† $p<.10$, * $p<.01$



<그림 2> 구조모형

(4)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최종 구조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를 통하여 효과분해를 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9〉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인권태도 ← 영성지능	.129*		.129*
다문화 역량 ← 영성지능	.109†	.041†	.151†
다문화 역량 ← 인권태도	.322***		.322***

† p<.10, *p<.05, ***p<.001

첫째,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129, p=.0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인권태도의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성지능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109, p=.10$)와 간접효과($\beta=.041, p=.10$), 총효과($\beta=.151, p=.10$)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도 높아지며, 영성지능이 인권태도를 매개로 해서도 다문화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인권태도가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322, p=.0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가질수록 다문화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이르는 경로, 영성지능이 다문화 역량에 이르는 경로, 인권태도가 다문화 역량에 이르는 경로 등 3개의 직접적인 경로 중에서 인권태도가 다문화 역량에 이르는 경로의 직접효과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5)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의 관계에서의 인권태도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이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인권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106, p<.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2.919($p<.10$)로 유의하였으며 $adj.R^2$ 이 .011로 1.1%의 설명력을 가진다. 2단계로 영성지능은 다문화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21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12.328($p<.001$)로 유의하였으며 $adj.R^2$ 이 .046으로 4.6%의 설명력을 가진다. 3단계로 영성지능과 인권태도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영성지능($\beta=.203, p<.001$)과 인권태도($\beta=.099, p<.10$)는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7.525($p<.001$)로 유의하였으며 $adj.R^2$ 이 .056으로 5.6%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성지능의 영향력은 β 값이 2단계($\beta=.214$)보다 3단계($\beta=.20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

의 관계에서 인권태도가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

단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1단계	영성지능 → 인권태도		.054	.031	.106	1.708
	F= 2.919* R ² (adj.R ²)= .011(.007)					
2단계	영성지능 → 다문화 역량		.129	.037	.214	3.511
	F= 12.328*** R ² (adj.R ²)= .046(.042)					
3단계	영성지능 → 다문화 역량		.123	.037	.203	3.330
	인권태도 → 다문화 역량		.119	.073	.099	1.626
F= 7.525*** R ² (adj.R ²)= .056(.048)						

† p<.10,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5개 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다문화 역량의 관련변인인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문화 역량은 3.41, 영성지능은 3.32, 인권태도는 3.35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에서는 다문화 역량의 경우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권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 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송영선(2012)과 휴먼서비스분야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소정(2013)에서도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역량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영성지능은 종교 유무와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라 영성의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종교 유무가 영성의 수준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김미경, 2011) 신적 존재, 초월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영성의 수준만이 종교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미경, 2013; 김은정, 2006). 인권태도의 경우 연령, 학년,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권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현장 종사자의 인권태도를 분석한 김경미(2013), 황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에 따라 인권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 인권태도가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성지능의 영향, 다문화 역량에 대한 인권태도의 영향, 인권태도에 대한 영성지능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다.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성지능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초월적 가치를 부여하는 영성지능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고 기본적인 권리들을 인정하는 인권태도 또한 영성지능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영성지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다문화 역량에 대한 인권태도의 유의한 영향력은 자신과 다른 집단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 집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게 한다. 다문화 역량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적인 관점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권태도는 또한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적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의 수준을 높게 가질 때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되는 인권적인 관점이 강화되며 이러한 인권적 관점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주자들을 원조하는데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함의이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의 관련변인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검증하여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연구를 보다 풍성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영성을 측정가능한 실천적인 연구주제로 구체화하였으며, 인권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학문적 영역에서의 인권에 관한 담론을 확장시켰다.

둘째, 실천적 함의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영성지능은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영성지능은 이질적인 문화배경에 속한 집단을 포용하고 실천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따라서 교내 학생생활 지원센터에서 영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업시간이나 세미나, 워크샵에서 전문가를 활용하여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영성지능이 예비사회복지사의 실천에 유용한 내적자산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적 함의이다. 초·중등 교육과 같이 대학에서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은 실천현장에 종사하기 전부터 사전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이선주, 2009). 현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조문이 있으나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에 인권교과목의 개설을 강제하는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지향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대학의 실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침을 제도화하는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다문화 역량, 영성지능, 인권태도에 대해 보다 민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감하다'는 것은 '유의하고 지향하며 강화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나타나는 반응의 형태를 의미한다(Canda & Furman, 2010). 특히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은 '다문화 역량 민감성'과 '영성지능 민감성', '인권태도 민감성'의 3가지 '다(多)민감성(Multi-Sensitivity)'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첫째, '다문화 역량 민감성'이란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강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 역량 민감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복지 실천을 돕는 주요한 역량적 요소들의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적 개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영성지능 민감성'이란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의 6가지 특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영성적인 차원을 알고 이에 유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태도 민감성'이란 언론의 자유, 기회의 균등, 생존 및 보건의 권리, 종교·정치·사생활권 등과 관련하여 인권적인 입장과 견해를 지향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요인들이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영향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의 관계에서 인권태도의 매개적인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설명력에 있어서 매우 약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인권교육경험에 따라 영성지능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면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관계는 단순한 일방향의 관계 설정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구성개념과 두 변수 간의 선후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관계를 규명한다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휴먼서비스 전공분야의 대학생과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등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대학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더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 인권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다문화 역량과 영성지능의 관계에서 인권태도가 어떠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역량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 등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13,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테리사, 2002, "사회복지에 비취진 영성적 접근에 대한 고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 2013, "사회복지전공생의 차별태도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교육과 경험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 연구』, 14: 195-221.
- 김미경, 2011, "요양보호사 영성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13, "청소년의 영적 성숙도와 종교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용환·김승돈·최금주 역, 2007,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Canda, E. R., 1998, Spirituality in social work, 서울: 양서원.
- 김은정, 2006,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 김세영, 2015, “에비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281-301.
- 김정덕·모경환, 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193-226.
- 도승자, 2015, “사회복지사의 리더십과 영성지능개발을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1-40.
- 류귀분, 201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종욱, 2012, “다문화사회와 인권법사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8: 445-467.
- 민선영, 2008,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1-28.
- 박소정, 2013, “휴먼서비스분야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 실태와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2013,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범석, 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영선, 2012, “다문화기관 종사자의 인권태도와 서비스질 및 다문화역량 간의 관계”,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자, 2013,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역량 제고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2): 61-88.
- 심만섭,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영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신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복자·강경아, 2001, “영성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967-977.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영준, 2013,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영성의 필요성”, 영성과 사회복지학 학술대회, 3: 52-67.
- 유장춘, 200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통합연구』, 16(2): 9-44.
- 윤찬영, 2000, “정신장애인의 인권운동”,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31-43.
- 이경열, 2005, “영성증진훈련프로그램이 영성, 자기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 2000, “인권의식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이은철·김민정, 2010, “청소년을 위한 영성 척도 개발”, 『열린교육연구』, 18(3): 243-263.
- 이종태·조난심·나병현·구정화·송현정·이은규, 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한국교육연구소.
- 이춘호, 2014, “한국 거주 외국인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이주자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은동, 2011, “Lum의 ‘사회복지 문화적 역량 자기평가’ 척도 한국판 타당화 및 하위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정희, 2010, “영성지능과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 연구 -20~50대 성인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11, “다문화 실천인력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405-439.
- 황미경, 2014,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와 인권교육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7(1): 77-100.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anda, E. R., and Furman, L. D., 2010,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G. M., and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7-525.
- Epsteins, R., and Hunder, E., 2002, "Defin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7(2), 226-235.
- Holloway, M., and Moss, B., 2010,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N.Y.: Palgrave Macmillan*.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1.
- Lum, D. 2003.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verse groups and justice issues", *CA: Brooks/Cole*.
- Olavarria, M., Beaulac, J., Bélanger, A., Young, M. and Aubry, T., 2005, "Cultural competencies for health and social organizations. Centre for Research in Community Services", *University of Ottawa*.
- Sue, D. W., 2006,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Weaver, H. N. 2004. The elements of cultural competence: Applications with native american clients. *Journal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13(1): 19-35.
- Wigglesworth, C., 2006, "Why spiritual intelligence is essential to mature leadership", *Houston, Texas: Conscious Pursuits, Inc.*
- Zohar, D., and Marshall, I., 2004, "Spiritual capital", *London: Bloomsbury*.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Analysis on Multicultural Competence Relating to Spiritu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Park, Sun Hee
(Sungduk 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studies and to verify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attitude and spiritual intelligence that affect multicultural competenc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piritual intelligence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Human rights attitude was established as a mediating variable. Study subjects were 259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studies at 5 universities in the Daegu, Gyeongbuk area. Spiritu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attitude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ulticultural competence, indicating that a higher level of spiritu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attitude were correlated with a higher level of human rights attitude. Also in the pathway of spiritual intelligence on multicultural competence, human rights attitud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hen the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social welfare studies had a high level of spiritual intelligence including transcendence and meaning and purpose of life, their perspective on human rights which is important in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affected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required to assist immigrants of various identit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t is recommende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to have the "three-multi-sensitivities" including sensitivity of multicultural competence, sensitivity of spiritual intelligence, and sensitivity of human right attitude.

Key words: multicultural competence, spiritual intelligence, human rights attitude, multi-sensitivities, structural equation model, university students

[논문 접수일 : 16. 09. 30, 심사일 : 16. 10. 24, 게재 확정일 : 16. 12. 06]